

취업난에도 구직자들 “지방은 싫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구직활동을 하는 수도권 거주 청년 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9.2%가 '다소 그렇다', 23.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별로 상관없다'거나 '전혀 상관없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22.6%와 4.6%에 그쳤다.

비수도권 회사에 지원하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4.5%에 달했다.

수도권 거주 청년 구직자 3명 중 1명은 아무리 조건이 좋은 회사라도 지방에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가급적 지원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1.6%에 달했다.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가족·친구 등 네트워크가 없어서' (60.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문화 인프라가 열악해서' (59.8%), '주거·생활비가 부담돼서' (48.9%), '원하는 직장이 없어서' (14.2%), '성장 기회가 부족해서' (6.8%), '결혼·자녀교육이 어려워서' (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연봉(36.5%)과 근무지역(28.9%)이 각각 1위, 2위로 집계됐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21.3%), '개인 커리어 개발' (9.3%), '회사의 성장 가능성' (2.7%) 등이 뒤를 따랐다.

기업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방 4대 그룹 소속 기업' (26.6%)보다 '수도권 일반 대기업' (73.4%)에 입사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

비싼 배달비 때문에 마트·편의점 찾는 소비자 증가

배달비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은 마감 할인 시간에 대형마트를 찾거나 가격이 저렴한 편의점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8일 '뉴시스'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를 이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3대 배달앱 이용자수는 최근 한 달 새 10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용자 감소 원인은 치솟은 배달비 때문이다. 2,000~3,000원이었던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비는 최대 5,000원까지 높아졌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사람들의 음식점 방문이 늘어난 것도 배달앱 이용 감소로 이어졌다.



▲ 대형마트 간편식 코너에서 한 여성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워킹맘 최 모씨(45)는 "배달비가 너무 올라 아이들 간식을 모두 대형마트 간편식으로 바꿨다"며 "퇴근 후 저녁 세일 시간대에 대형마트에 가면 20~30% 저렴하게 다양한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조 브랜드(NB)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도 한결 많아졌다.

동네 가게들과 손님을 무료로 연결해주는 당근마켓 '비즈니스프로필'에는 지난 5월 동네가게 '포장' 관련 게시글이 올 1월보다 27% 늘었다. 이 앱에선 음식점 업주들이 게시글을 올리고, 포장 주문 시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탈서울' 62%가 경기로 전입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경기권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GTX 등 교통호재부터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위주로 실수요자들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서울경제'가 한국부동산원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5,041만원이다. 1년 전보다 26.1% 오른 가격이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71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수요자들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은 경기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국내 인구 이동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사다리차로 아파트를 내리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1년간(2021년 5월~2022년 4월) 서울을 벗어난 이동자 수는 총 53만7,288명인데, 이 중 무려 62.08%에 달하는 32만9,468명이 경기도로 전입했다. 서울에서 전월세로 살 바에 경기권의 새 집을 매수하겠다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자료를 보면 서울 거주자가 경기권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올해 3월 1,610건에서 4월 3,148건으로 경증 뛰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제한, 금리인상 등의 부담으로 서울 매매, 전세값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어 경기지역 물량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에 쾌적한 주거환경, 교통호재까지 갖춘 수도권 위주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